

# 늘어가는 제주... 15년세 평균연령 6.7세 올라

### 2010년 38→지난해 44.7세... 서귀포시 상대적으로 높아 합계출산율 절반 '뚝'... 조사망률 높고 인구유출 심화

제주지역의 평균연령이 저출생·고령화에 청년층 유출 등의 복합적 이유로 최근 15년세 6.7세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자녀를 동반한 30~50대의 '제주 이주 열풍'마저 식으면서 제주사회는 빠르게 나이를 먹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제주의 평균연령은 45.1세(남 44, 여 46.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 전국평균 45.7세(남 44.6, 여 46.8)와 비교해 0.6살가량 차이

를 보였다. 가장 젊은 지역인 세종시의 39.5세(남 38.9, 여 40)보다 5.6세 많았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49.1세(남 47.8, 여 51.1)로 세종과는 10살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제주의 평균연령은 지난 15년세 6.7세나 많아졌다. 5년 단위로 2010년 38세(38.1세, 전국평균 이하 생략)에서 2014년 39.7세(40세), 2019년 41.9세(42.6세), 2024년 44.7세(45.3세)로 빠르게 상승했다.

이 기간에 행정시별로 제주시는

37.1세에서 지난해 43.7세로, 서귀포시는 40.4세에서 지난해 47.1세를 기록했다. 서귀포시의 평균연령이 제주시에 비해 3.4세 많은 셈이다. 이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인 서귀포시에는 고령층이 많고, 제주시에는 일자리와 교육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몰리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0년 1.56명(전국 1.23명)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인 0.83명(0.75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제주지역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2010년 5.1명(5.1명)에서 지난해 7.8명(7.0명)으

로 늘었다. 조사망률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살이 열풍이 꺾이면서 2023년 1000명, 지난해 2000명 등 지난 2년세 제주에서 3000명가량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특히 청년층(19~34세)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매년 1000명 정도가 제주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저출생·고령화에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제주의 평균연령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취미로 배운 서핑... 경찰, 기지 발휘 관광객 구조



서핑 보드로 파도에 휩쓸려 표류 중인 관광객을 구한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소속 김양재 경사. 제주경찰청 제공

떨어진 바다에서 표류하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사고 당시 인근 다른 서퍼들이 표류하던 A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높은 파도로 구조에 실패하자 119에 신고했다.

119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을 요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의 '코드'를 발령했고,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소속 김양재(39) 경사 등 2명이 현장에 급파됐다.

김 경사는 소방과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던 자칫 구조대상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근 서핑업체에서 보드를 빌려 타고 약 2m 높이 파도를 뚫고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평소 취미로 3~4년간 배웠던 서핑 실력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구조된 A씨는 탈진과 저체온 증상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평소 서핑을 즐기면서 파도와 조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 순간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구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제주 경찰이 빠른 판단으로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던 관광객을 무사히 구조해 화제다. 특히 구조과정에서 평소 취미로 배웠던 서핑 실력을 발휘하는 기지를 보였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쯤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해안에서 약 200~300m

## 건강주치의사업, 의료기관 10여 곳 '호응'

### 내달 동부·서부 원도심서 시작 노인·아동에 포괄적 의료서비스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도내 10여 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 70여 개소 중 1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질병 관리·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이번 시범사업은 동부(구좌·성산·표선), 서부(애월·대정·안덕), 제

주시 원도심(삼도1·2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 지역 가운데 의료기관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로 제주도는 이달 안에 최종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의료기관들과 함께 제주도는 10월 1일부터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교육, 요양·돌봄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 서귀포서 용접 중 폭발사고

### 병원 이송 50대 남성 숨져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50대 남성이 숨졌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7분쯤 서귀포시 효돈동 소재 냉동 장비 제조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급속 파편을 가슴에 맞아 심저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1회 '세계 평화의 날' 21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1회 '2025 세계 평화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 야생버섯 먹는 3명 병원 이송

야생버섯을 먹고 복통을 일으킨 한 동네 주민 3명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4분쯤 제주시 구좌읍 소재 주택에서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 등 3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인이 말뚝버섯이라며 채취해 가져다 준 야생버섯을 먹은 뒤 이 같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탁기자

## 꽃자왈공유화재단, 10~11월 기금후원 캠페인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은 '생명의 숲 꽃자왈, 우리 같이 지켜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25 꽃자왈 공유화 기금후원 '같이' 캠페인'을 오는 10~11월까지 두 달간 집중 전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같이' 캠페인은 전 국민이 함께 꽃자왈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후원 참여자들 '꽃자왈 동반자'로 위촉함으로써 지속

적인 참여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재단은 꽃자왈 공유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월 1만원씩 후원하는 '1만원의 기쁨'을 같이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재단은 2030년까지 사유지 꽃자왈 50만평 공유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10년(2021~2030) 비전 '살아 아름다운 꽃자왈 동반자'를 선

포한데 이어 꽃자왈 공유화운동의 3대 패러다임으로 ▶꽃자왈 사유지의 공유화 ▶꽃자왈 가치의 공유화 ▶꽃자왈 연구의 공유화 운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금으로 33만평(약 1.08km<sup>2</sup>), 134억원 규모의 꽃자왈을 공유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 홈페이지(www.jejustrust.net)를 참조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 대상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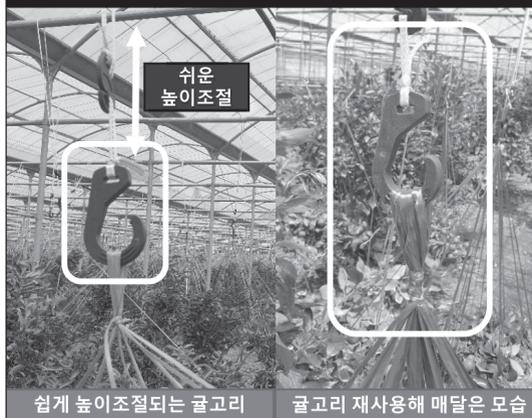
##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